

다산포럼

김민환



마크 펜(Mark J. Penn)이라면 미국에서 웬만한 홍보 전문가들은 그 이름을 다 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자문하면서, 자녀교육에 정신을 쏟는 사커맘(soccer moms)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내놓게 한 이가 바로 펜이다. 홍보 전문가들은 그 전략을 지금도 대표적인 성공 신화의 하나로 회자한다. 그가 컨설턴트인 키니 켈리슨(E. Kinney Zalesne)과 함께 2007년에 낸 '마이크로트렌드'라는 책은 요즘 바뀌고 있는 세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의 포르노 열풍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어릴 적에 '차타 레이 부인의 사랑' 정도를 몰래 읽으며 자란 세대에겐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잡지를 통해서나 은밀하게 접하던 포르노가 인터넷의 발달로 생활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다. 펜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런 포르노 웹사이트가 400만 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웹사이트의 12%에 해당한다.

미국 성인 가운데 약 4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한다. 정기적으로 야구장을 찾는 사람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등록된 포르노 페이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는 약 1천만

포르노시대, 우리는 어디에

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소국인 상토메의 경우 그 나라 인구의 두 배를 넘는 30만7천 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다. 지금 세계인은 바쁘고 고강한 척하면서 사실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더 포르노에 빠져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수치만이 아니다. 한 웹 보안업체에 따르면 포르노 중 70%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다운로드 된다. 그런 작업을 밤이 아니라 대낮에 한다는 얘기도 있다. 펜은 근무 시간에 컴퓨터에 얼굴을 바고 있는 미국 직장인의 5분의 1 정도가 포르노를 보거나 다운받은 적이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펜에 따르면 포르노가 성인 남자의 전 유물이던 시대는 갔다. 태국의 한 잡지는 2002년에 12세에서 25세 사이의 태국 젊은이 가운데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의 비율이 71%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45%였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캐나다 앨버타의 13~14세 청소년 중 포르노를 '셀 수 없이 많이 봤다'는 아이들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

때문인지 섹스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도 자꾸 낮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6세 정도에 첫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 되었다고 한다.

여성이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향도 매년 몰라보게 늘고 있다. 미국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의 4분의 1이 여자다. 남자가 함께 보는 것도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2004년에 한 콘돔 제조업체가 실시한 성생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35%에 달했다. 포르노 보는 걸 파트너

에게만은 숨기고 싶었던 시절은 간 것이 아니다.

포르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지만 이제 포르노는 여전한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펜에 따르면 포르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57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미국 포르노 산업이 1년에 창출하는 자금만 해도 120억 달러 가량이다.

2001년만 해도 포르노 산업이 거꾸돌린 금액이 메이저리그 야구, 미식축구, 프로농구의 수입 전부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2006년도도 경우 인터넷 포르노의 수익규모가 ABC, CBS, NBC 등 방송 3사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가 많았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의 상태를 더 우려한다. 인터넷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포르노를 접할 날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스펀 문자가 오듯이 포르노 스펀이 휴대 폰으로 날아올 날도 머지않았다.

인터넷 감각, 휴대 폰 감각이라는 우리나라에 포르노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그것도 이미 세계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아닐까?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신성한 5·18 묘역서 추태라니

지난 17일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광주 망월동 5·18 국립 묘지에서 추태를 부려 반목을 사고 있다.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정세균 대표 등을 상대로 강운태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강운태 복당 반대" 구호와 함께 정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막는 당직자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말리던 강기정 의원이 당원들에게 먹살을 잡히기도 했다.

비록 일부 당원들의 행태이기는 하나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을 접한 광주 시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5·18 묘역이 어떤 곳인가. 민주와 인권,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이 안장된 민주 성지가 아닌가.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신성한 묘역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을 벌였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광주 의 정신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당원들의 행태를 보고 참배객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 거린다. 게다가 당내문제를 성스러운 묘역에서 합의시위로 표출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5·18을 전후로 광주를 찾는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5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골치 앓은 시신을 받고 있다. 이번 물리적 충돌의 배경이 강운태 의원 복당과 관련된 당내문제였다. 이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지지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철옹성이라고 자부하던 정홍선 선거구(광역의원)와 광주 서구 다선거구(기초의원)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호남의 민심이반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어제 5·18 29주년 행사에서 당 지도부에게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역 원로들의 쓴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 회합을 주지는 못 할망정 추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정일용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요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수입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페단으로는 긴 유통 기간으로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며, 자국민이 먹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인식으로 농약의 노출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지어도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고, 농약을 많이 친 농산물에 비해 불평이 없어 오히려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

리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친환경 농업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소비자를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도 진짜 친환경 농산물인지 믿기가 쉽지 않고,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가 망설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사랑행복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을 봄에 씨뿌리는 것부터 여름에 김매기, 가을에 수확하기 등 핵심 과정들을 각 품목별로 일관 되게 학습 체험을 하는 친환경 농법 시민 강좌이다. 행복발전소는 지난 4월17일에 담양 대추면 시목마을에 텃밭에 상치, 쑥갓, 배추 등의 씨를 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 달 정도 후에 김매기, 솟아내기 행사를 하고, 나중에는 직접 수확을 할 것이다. 작년에는 영광에서 친환경 배파기 행사와 담양에서 친환경 감 파기 행사도 개최했다. 올 여름에는 영광 아촌에도 방문하여 갯벌 체험, 염전체험 등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좋은 소금과 해산물

농촌과 가까워지는 체험 프로그램을

리고, 각 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하는 이유는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식량은 평상시에는 수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식량을 독점하게 되면 국가가 식량 값을 올리며 막강 파워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매년 배출이 줄어들게 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좋다. 이러한 체험행사를 통해 신뢰를 쌓아 농산물 직거래와 친환경 농산물 전문 식당들을 체험 농촌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면 농가소득증대와 도시민의 행복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농촌체험을 통해 가까워진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전원주택을 지어 귀농을 하는 것도 도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한 귀농 생활이 될 것이다. 시민들과 자치단체들의 많은 협력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이사장〉

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위 발표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너무 어긋난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어떤 축제는 1위, 어떤 축제는 100위라며 금을 그을 경우 늦게 출발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축제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지역축제는 고유의 특징을 갖되 매년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2년마다 열리지만, 무려 3년에 걸쳐 다음 행사를 준비할 적이 있다. 매년 열리는 김치축제 역시 준비가 미흡해 열리지 못한 해도 있다.

현재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축제들의 출발이 쉽지 않았다. 겨울마 단계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어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었겠는가. 조직 내부간의 갈등도 있었을 테고, 진행과정에서의 솔직한 시정확오도 겪었을 법하다. 물론 지자체마다 축제를 떠났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좌절을 맛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축제는 실패를 거울삼아 횡수를 거듭할수록 안정된 모습을 찾아

학생들 대학등록금 고통...근본적인 대책 나와야

지금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동생은 지금까지 번번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해결해 왔다. 5학기째 학자금을 대출하며 늘어난 이자에 자취방 월세까지 동생이 모 든 걸 때안고 꾸러나가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처럼 힘든 와중에도 그나마 버티며 책값이나 기본 용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과외를 해서 충당할 때 문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과외마저도 자꾸 끊겨서 걱정이라며 하소연을 했다.

경기불황이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면 학비와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은 정말로 견뎌내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서울

의 명문 사립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사건까지 신문에 보도됐던 걸로 안다.

학비와 생활비는 오르지만 정작 과외 등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어들고, 취업난 속에 미래까지 불투명해지는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사면초가는 말이 딱 맞는다.

그런데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 기만 하는 학비와, 그걸 구경만 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대학교육 담당자들은 지금 처한 대학생들의 이런 처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기고

박윤모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국 축제의 인지 및 선호도를 보면 광주 총장축제가 200위권으로 크게 밀려난 것으로 나온다. 광주 동구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만들어낸 대가치고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무릇 축제는 각각의 특색이 있고 성격이 다르기 마련이다. 지역민의 정서와 문화는 지역민이 빛을 그릇에 담아 내야 제맛을 낸다. 그런데도 불투명한 순위 순위를 매기고,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

는 경우도 있다. 총장축제의 경우 촘촘한 기획을 통해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려내면서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축제 현장에서 만난 한 외국인은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영화 '친구'에서 본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며 "이런 전통을 일깨우는 광주만의 문화가 정말 부럽다"고 말한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총장축제도 아직 보완해야 할

일어나라 총장축제여!

점이 많다. 축제의 주체가 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 시민들에게 축제의 유용성을 널리 알려 가능한 한 많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러자면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동구만의 건전한 정서와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특히 축제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고려, 외지 상인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뤄야 한다.

또 여론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들 서포터즈를 통해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목소리를 들어 이를 축제운영에 반영하고, 서포터즈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광주시와 동구청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13개의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지만, 이중 참여객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선택해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광주 공동국장장〉

가게 두는 수법이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메일을 통해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편지가 있어 무심코 개봉하면 행운의 편지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아무리 행운의 편지라도 보내는 사람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태도에 누구라도 짜증이 날 것이다. 동반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런 장난이 결국 개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불편과 부담을 주니 이런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신수동

짜증나는 메일함 속 '행운의 편지' 그만 했으면

청소년 시절에 행운의 편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 혹은 그걸 받아서 두려운 마음에 답장을 써보냈거나 혹은 써야하는지 한바탕을 고민해 봤을 것이다.

이 행운의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를 무작위로 우편함에 넣어서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 아주 황당스러운 내용이다.

그 재앙이란 자신 혹은 가족 중 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끔찍한 예언이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유명 인사를 열

거 해 두는 수법이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메일을 통해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편지가 있어 무심코 개봉하면 행운의 편지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아무리 행운의 편지라도 보내는 사람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태도에 누구라도 짜증이 날 것이다. 동반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런 장난이 결국 개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불편과 부담을 주니 이런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신수동

無等鼓

5·18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은 18일 동남아의 군부통치 국가인 미얀마(민주운동가들은 옛 국명인 버마로 지칭)에서 우물쭈물 소식 들려왔다. 미얀마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아웅산(1915~1947)의 딸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수치(63) 여사가 또 구급재 판을 받은 것이다.

미얀마 군정이 내세우는 재판 이유는 들으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미얀마 군사 정부가 수치 여사를 체포한 것은 한 미국인 때문이다. 지난 2일 미국인 존 에토 씨 는 미얀마에 입국한 뒤 다음날 밤 양곤 호숫가에 있는 수치 여사 자택에 헤엄쳐 잡힌 채 이를 동안 머문 뒤 물레 빠져버려진 채로 체포됐다.

군정 치하인 미얀마에서는 가족이 아닌 이가 심야에 미얀마인을 방문할 경우 손님에 맞은 사람은 친척이 아니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 손님은 미얀마인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다.

수치 여사는 이 같은 보안규정을 어겨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날 재판판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이미 13년간에 걸친 가택연금에 시달려 왔으며 오는 27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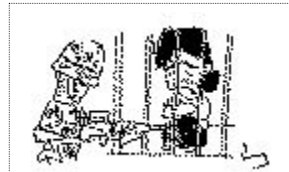
미얀마 군정이 수치 여사를 구급한 진짜 까닭은 다른 데 있다. 외국 언론들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0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진보동맹이 495석 중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자 군정은 선거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정 최고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이 내년 총선 패배를 우려 해 수치 여사를 구급시켰다는 것이다.

미얀마 군정이 열도당도않은 이유로 키 167cm, 몸무게 47kg의 가녀린 수치 여사를 구급하고 재판한 것은 단적으로 '민심'을 두려워해서다. 5·18 민주화운동 29주년에 미얀마에서 벌어진 서글픈 이야기다.

■박기정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아웅산 수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2>	조선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